

오리콘 콘트라베스의 Skyguard III / 35mm 쌍열 Ahead 방공체계 - 우수한 對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저고도 방공 -

최근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전투에서 공중 공격은 민간인과 중요한 군사 및 비군사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전투 부대에 치명적 위협 중의 하나이다.

전투기, 공격용 헬기 및 순항 미사일로부터 대방사 미사일(ARM)과 다른 정밀 유도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인 항공기 등이 이러한 공격자 집단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아주 소규모적이고,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은 기상, 지형, 거대한 전자 역대책(ECM)에 관계없이 주야로 공격한다.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시험되어 주요 NATO 국

가에서 도입한 오리콘 콘트라베스(O-C)사의 Skyshield 35 Ahead 방공체계는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화포를 기초로 저·고도 방공체계를 구성한다.

Ahead 對미사일 기술의 기본 원리는 접근하는 표적의 "직 전방에서" 각각의 35mm 탄의 꼬리 - 안정 자탄을 방출시켜 치명적인 수천개의 중금속 자탄 구름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 공격 표적의 방호 수준은 이러한 자탄의 극도로 높은 운동에너지로 인하여 파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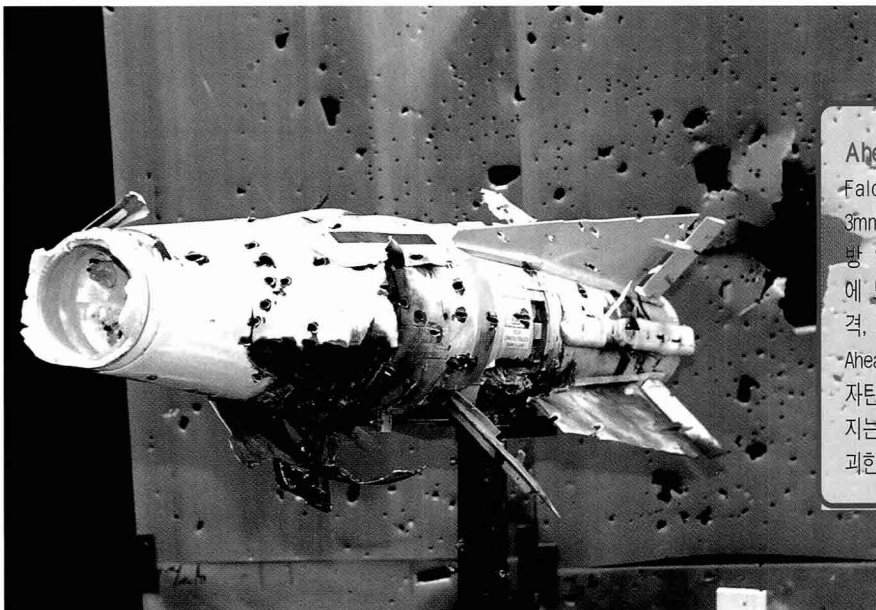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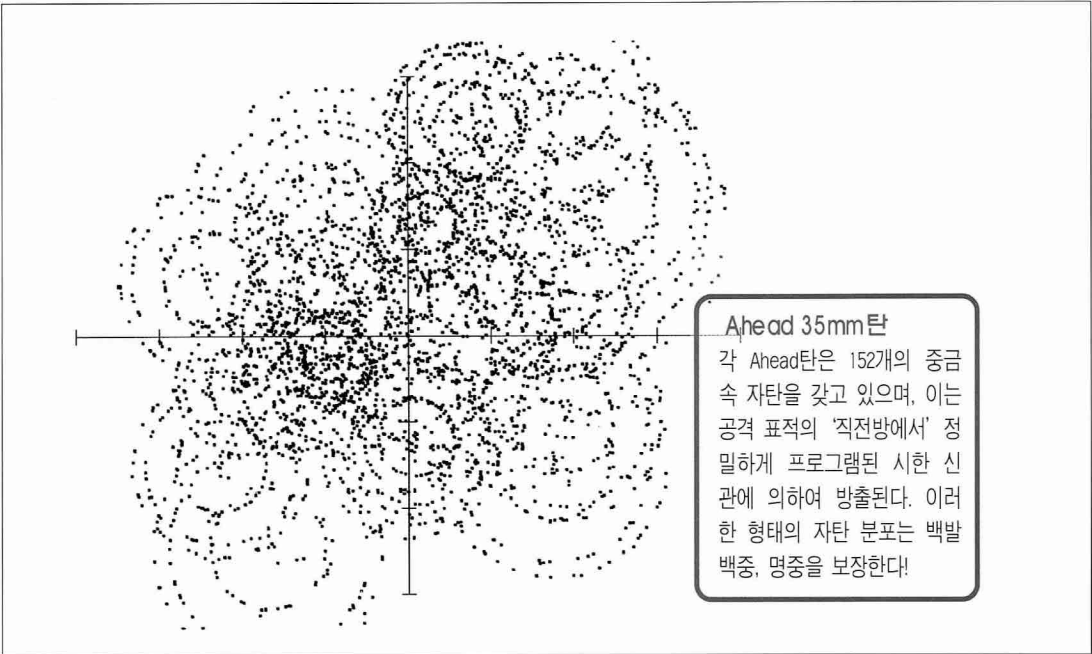
오리콘 콘트라베스는 최근 전천후 화력 통제 장치인 트레일러 - 거치 Skyguard III를 발주시켰다.

Skyguard III는 3D I-band 레이더의 이중 방식(dual mode)이고 Skyshield 35 방공체계의 감지장치에도 사용되었고 -5°에서 +70°까지의 고저각과 완전 360° 주사하는 특징이 있다.



Ahead 35mm × 228탄

내장물은 각각 무게 3.3g의 152개 텅스텐 자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구 속도의 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 신관은 이 자탄에 접근하는 표적의 '직 전방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방출한다.



Ahead 35mm 탄
 Falcon 미사일 표적을 3mm 알루미늄 합금판 전방 약 0.15m²의 표적 지역에 노출시켜 Ahead탄을 사격, 파괴한 결과이다.
 Ahead탄 중금속(꼬리 안정자탄)의 고도의 운동에너지는 표적을 명중하여 파괴한다.

첨단무기소개

35mm 쌍열 대공포

Ahead 대(對) 미사일 능력을 구비한 전형적인 저고도 방공포이다.

GDF-001/002/003형의 35mm 쌍열포는 Ahead 대(對) 미사일 체계를 포함시켜 최신 GDF-005로 개량이 가능하다.



Skyguard III 화력 통제 장치 (FCU)

신형 Skyguard III는 다목적 화력 통제 장치이다. 전형적인 저고도 방공체계에서의 현존하는 고도의 화력 통제는 모든 미사일 위협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성능 확대가 가능하다. 전자분야(새로운 다중 빔 안테나)에서 최신 기술 적용으로 또 한번 생존 순환 기간을 위한 군수 지원을 보장한다.



Skyguard III / 35mm 쌍열포 대공체계

Ahead 대(對) 미사일 능력을 구비
 토록 2대의 저고도 35mm 쌍열 방
 공포(Skyguard III를 위한 GDF-
 001/002/003형)를 통제하는 새로운
 Skyguard III 다목적 화력 통제 장
 치이다. 전자분야(새로운 다중 빔
 안테나)에서 최신 기술의 적용으
 로 또 한번 생존 순환 기간을 위
 한 군수 지원을 보장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일 source 공급자로부터
 Ahead 대(對) 미사일 능력을 포함
 한, 가장 효과적인 저고도 방공 망
 을 구성한다.

레이더 거리는 표적 크기에 달려 있다. 약 20km 표적 거리에서 cross-section은 2m²이고, 약 12km 표적거리에서 cross-section은 0.5m²이다.

수요군은 TV/적외선 카메라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포함된 추적 레이더가 장착된 다양한 감시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표적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두 명의 조작자인 사격 지휘자 및 사수에 필요한 모든 전투 첩보 및 방공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원을 제공하는 평면 터치스크린(touch screen) 디스플레이가 있다.

증가하는 對방사 미사일(ARM)의 위협으로 Skyguard III의 조작자 생존력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격 부대는 신속히 이동할 수 있고 Skyguard III 레이더로부터 500m까지의 안전한 거리에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리콘 콘트라베스는 공중 공간 감시와 엄호의 최적 수준을 제공하고 가용한 방공 화기의 사용을 최대

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대간 화망 구성에도 많은 투자를 해 왔다.

Skyguard III는 전형적으로 두 개의 35mm GDF 쌍열 방공포를 통제한다. 이것은 또한 화포와 미사일을 복합해서 통제하기도 한다. 후자는 장거리 표적을 사격하는데 사용하는 반면, 화포는 단거리 표적과 교전하는데 사용된다.

한국의 저고도 방공 부대의 전투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현재 보유중인 구식 수퍼후레다마우스 화력 통제 장치를 오리콘 콘트라베스의 트레일러-거치 전천후 화력 통제 장치인 Skyguard III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저고도 방공에서 필요 충분 조건에 부합되며 효과적인 최상의 해결책으로 고려된다.

전세계 40여개 이상 나라에서 다량으로 운용되고 있고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35mm GDF 쌍열 방공포를 Ahead 對미사일 능력을 포함시키는 개량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